

# 미사 강론

2025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  
(2025.6.22. 12:00 주교좌명동대성당)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부활 시기의 마지막 즈음부터 연중 시기가 다시 된 이즈음까지 교회는 여러 대축일을 연속적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부활 대축일이어서 6번의 부활 주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심을 기념하는 주님 승천 대축일을 보냈고, 승천 주일 다음에는 오순절, 곧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내며 부활 시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3위의 하느님께서 모두 이렇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다음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주일이 바로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냈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세 위격의 하느님께서 한 분의 하느님이심을 고백하는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원래 보면 교회에서는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목요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 목요일 밤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더 많은 신자분이 성체 성혈 대축일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자는 사목적인 배려로 목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체성사는 그저 하나의 상징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빵과 포도주가 미사성제 때에 사제의 축성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감각 기관으로는 알 수 없는 깊은 신비입니다. 이 깊은 신비를 철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진료와 형상, 또 실체와 껍데기 표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의 외양 바깥 모습은 그대로이지만, 미사 때 사제의 축성 기도를 통해서 빵과 포도주의 실체, 그러니까 외양 껍데기는 그대로지만 스킴스탕시아(substansia)라는 그 실체, 본체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는 실체 변화, 그러니까 스킴스탕시아가 변한다는 의미로 트란스 스킴스탕시아(trans substansia), 이런 조금 어려운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용어를 통해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는 예수님의 참된 진짜 몸을 우리가 받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살아 있는 감실이 되는 것입니다.

특pecially 오늘 우리는 성체 성혈 대축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의 힘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6월 25일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를 오늘 봉헌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는 수요일 6월 25일은 한국 전쟁, 6.25 전쟁 발발 75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매년 6월 25일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기념하고 있으며, 오늘은 더 많은 분이 함께 이 미사를 통해서 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 복음은 조금 전에 들은 루카 복음의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빵의 기적 이야기는 성체성사의 예표가 되는 장면입니다. 날이 저물고 어둑해지자 모여든 그 군중을 어찌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이 되었고 제자들은 우선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군중을 돌려보내고 각자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음식을 구해보자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해 보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전혀 다른 해법을,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십니다. 모인 사람들이 장정만도 5천 명이라 할 정도로 큰 무리가 있는 상황에서 당황한 제자들은 그렇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 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두 마리 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루카 복음과 병행되는 마르코 복음에서는 제자들 표현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백 데나리온 어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에 해당하니까 우리가 오늘날 좀 간단한 계산을 해보자면 200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10만 원만 생각하더라도 2천만 원 하는, ‘빵을 2천만 원씩이나 사야 됩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반문이 마르코 복음에는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 말처럼 군중을 흩어버리지도, 또 각자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보잘것없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두 마리,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눌 마음이 있는지 하는 그 여부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다짐하고 또 그 나눔을 우리가 할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서는 그 나눔을 축복하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성체성사 역시 같은 빵을 나누며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 역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참답게 나눌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시는 겁니다.



남북은 분단되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8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전쟁도 겪었고, 끊임없는 긴장과 대립 속에서 미움과 증오를 키워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이 군중을 각자 돌려보내는 게 어떠냐는 제안처럼 남북이 각자, 말하자면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자는 식의 주장도 힘을 얻게 됩니다. ‘왜 우리가 북한을 고민해야 하느냐?’ 혹은 북한에서는 ‘왜 우리가 남조선에 얽매어야 하느냐?’ 등, 남과 북이 서로 각자 멀어지려는 생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고 있고, 또 북조선에서도 적대적인 두 국가를 이야기 합니다. 서로가 남남이고 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서로 의심하게 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키워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반도를 갈등과 적대감으로 가득 채운 말하자면 “황량한 곳”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남과 북은 같은 나라, 같은 민족, 같은 문화로 우리는 살아왔고, 이곳 한반도는 언제나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식구였습니다. 서로 다른 운명이 아니었고, 같은 말, 같은 역사, 같은 문화를 이어온 한민족입니다. 그러기에 이 갈등과 분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먼저 손을 내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나눌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는 시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서는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남북 관계에서 작은 변화, 그렇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접경지 주민의 삶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였고, 그러자 북에서도 바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작은 변화지만 참으로 의미심장한 놀라운 변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멈출 줄 모르는 긴장이 한순간 낮아지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수 있다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이처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도 보잘것없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시작했듯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새로운 관계도 적대감을 내려놓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기억하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몸을 모신 우리가, 먼저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남북이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반도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고 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우리가 먼저 변화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 증오를 내려놓는 변화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반도에 필요한 은총을 하느님께 청합니다.

주님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그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회심을 이끌어 주소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대주교 정 순택 베드로**